해설 시나리오

1.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맑은 계곡 남창골에서 듣는 자연이야기*	**해 설 사**	*신혜선*
해 설 주 제	*인공림과 천연림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숲이 좋은지 생각해본다.*		
대상 및 인원	*성인, 10명*	**소 요 시 간**	*10분*

2. 세부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신혜선입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옆에 있는 나무를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길게 뻗은 울창한 나무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들일까요? 네 삼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톤치드라는 말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각종 서적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 산림욕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그럼 과연 피톤치드란 무엇일까요? 피톤치드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과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가 합쳐진 말로 식물이 내뿜는 휘발성 향기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 속에 들어갔을 때 풍기는 시원한 숲의 냄새가 바로 피톤치드인데요. 피톤치드는 숲 속의 각종 균이나 미생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이로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나무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의 어떤 곳에서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진제시)

숲은 크게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공림은 사람이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어 인공적으로 만든 숲입니다. 천연림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산림으로 자연스럽게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숲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공림과 천연림의 나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인공림은 목재를 생산하는 등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녹색으로 가꾸기 위해 한가지 종류의 나무로 인공림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당시 속성수를 선택하다 보니 리기다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 등의 외래 수종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사진 속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최근 치유의 숲으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나무 숲으로, 피톤치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로 그 주변에는 다른 식물 및 그러한 식물에 기대어 사는 동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수나 산사태에 약하고 병충해와 산불 등 각종 재해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천연림은 숲의 생태적인 순환과 진화, 즉 천이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숲입니다. 천이가 진행되는 숲의 나무들은 다양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줍니다. 천연림이 잘 형성된 내장산국립공원 입암산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삵을 비롯하여 지금은 만나기 힘들어진 오소리, 멧토끼, 너구리 등 다양한 포유류를 비롯하여 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찍힌 야생동물들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60%가 서식하는 국가핵심보호지역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종다양성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숲은 종다양성보존, 수질정화, 대기오염정화, 홍수조절 등의 자연적인 기능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히 함께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줍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숲을 보다 사려깊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숲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숲이 많아져야 할까요?